1901년 '신축교안' 120주년 화해의 시간으로

천주교 제주교구 기념사업
2003년 미래선언 뜻 이어
5월 28일 심포지엄 개최
이튿날엔 화해의 탑 제막
신축화해의 길 순례·미사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문창우 주교)가 '이재수의 난'으로 알려진 '신축교안(辛丑敎案)'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제주교구는 신축교안에 대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제주에 진출한 후 교세 확장 과정에서 천주교인들과 제주도민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1901년 발생한 유혈 사태"라고 밝혔다. 20세기 초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과 천주교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축교안은 그동안 현기영의 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1983)와 이에 바탕한 동명의 연극인 연우무대의 '변방에 우짖는 새'(1987), 현기영의 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박광수 감독의 '이재수의 난'(1999) 등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돼 대중들과 만났다. 앞서 문헌 자료로는 제주에 유배된 구한말 문장가 김윤식의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제주 일기 1897~1901), 일본에서 발행된 조무빈의 '야월(夜月)의 한라산: 이재수실기(李在守實記)'(1932)에 이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신축교안 관련 유적으로는 '제주대정삼의사비', 황사평 천주교 묘역이 있다. 삼의사비는 말 그대로 세 명의 장두인 이재수·오대현·강우백의 넋을 기려 1961년 대정 홍살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다 도로 확장 등으로 옮겨다니며 마모되고 초라해졌다며 대정고을연합청년회가 1997년 4월 20일 제주추사관 인근 지금의 인성리를 알리는 돌 표지석 옆에 새롭게 세웠다. 반면 제주시 화북2동의 황사평 묘역은 무연고 시신 등 신축교안으로 희생된 교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1903년 4월 천주교 측이 정부에서 양도받은 땅으로 1984년 공원 묘지로 조성됐다.

황사평 천주교 묘역. '신축교안' 당시 희생된 무연고 시신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진선희기자

제주교구는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아 신축교안 등 과거 교회사의 잘못을 반성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1901년 제주항쟁100주년 기념사업회'와 신축년 제주항쟁 기념 학술 대회를 열어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교구는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잘못을 사과한다"고 밝혔고, "상호 존중의 기조 위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120주년이 되는 올해는 심포지엄, 화해의 탑 제막, 위령미사 등 '미래선언'의 뜻을 이어 화해의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교안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날에 맞춰 집중적으로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

5월 28일 오후 2~5시30분에는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신축교안, 기억과 화합'을 주제로 신축교안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 조한건 신부)와 공동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사건을 되짚어 보며 교회의 반성과 함께 교회가 제주 사회와 동반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창우 제주교구장의 개회사 '신축교안의 오늘의 의미'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간행한 서적이나 신문·잡지에 서술된 신축교안 연구'(양인성 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대중 문화에 드러난 신축교안의 양상'(강옥희 상명대학교 교수), '2003년 미래 선언의 의미와 향후 기념 사업의 방향'(현요안 신부, 제주교구 사무처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5월 29일에는 신축교안의 현장 중 한 곳인 황사평, 9월에는 하논 본당 터에 각각 '화해의 탑'을 제막할 계획이다. 이때는 2003년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을 토대로 과거를 잊지 않고 '제주와 함께', '제주를 위한', '제주 천주교회'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화해의 탑' 조형물과 문구를 넣어 기념하기로 했다. 조형물 제작은 허민자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날 '화해의 탑' 제막식과 함께 황사평에서 중앙성당까지 '신축화해의 길' 순례도 이뤄진다. 가톨릭 신자와 제주도민들이 화해의 길을 걸으면서 제주의 미래와 평화를 향한 화합의 여정을 도모하는 순례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는 중앙성당에서 신축교안 120주년 기념 '신축교안 때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된다. 진선희기자

저지리에 '이타미준뮤지엄' 생긴다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
이달 19일 기공식 개최
건축과 예술세계 등 담아
제2의 고향 제주에 조성

이타미 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대표작을 남기고 떠난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한국 이름 유동룡, 1937~2011). 그의 건축과 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타미준뮤지엄'이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다.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은 이달 19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부지에서 이타미준뮤지엄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타미 준은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고 일본의 최고 건축상인 무라노도고상 아시아 문화환경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제주를 사랑했던 고인은 포도호텔, 수풍석미술관, 방주교회 등을 설계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타미준뮤지엄은 제주의 지역성을 담되 국제적 교류의 중심지를 꿈꾸며 지어진다. 이타미 준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어머니의 집과 제주 민가의 모습을 모티브로 설계된 건물이다. 대지면적 988㎡, 건축면적 394.64㎡, 연면적 705.64㎡ 의 지상 2층 규모로 약 13개월의 공사를 걸쳐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뒀다. 향후 이 공간에서는 이타미 준의 철학과 건축, 예술세계를 바탕으로 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펼치게 된다.

이번 이타미준뮤지엄 기공식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배경으로 한국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타미 준의 예술 세계를 만나는 자리로 꾸려진다. 유이화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노동요 '지경다지기 노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정은혜 명창의 축하 공연, 땅 밟기 행사가 잇따른다. 진선희기자

제주어상담실 이용자 20대 가장 많아

2020년 이용 실적 집계
20대 39%, 30대 21% 순
도외 거주자 전체의 23%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운영하는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자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20%가 넘는 이용자가 도외 거주자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내용을 분석해 상담자료집 '돌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를 묶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 사례는 총 40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단어 관련 168건(42%), 구와 문장 85건(21%), 뜻풀이 관련 39건(10%), 표기 관련 51건(13%), 어원과 지명 21건(5%), 문법과 발음 15건(4%)이었다. '단어' 관련 질문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것이 115건,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것이 53건이었다. '구와 문장' 85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6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 거주자가 306명(76%), 도외 거주자가 91명(23%) 이용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157명(3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대 86명(21%), 50대 56명(16%), 40대 54명(13%), 60대 17명(4%), 70대 11명(3%), 10대 6명(1%) 순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측은 "제주어를 궁금해하는 외국인도 있고, 20~30대 젊은 세대의 문의가 두드러져 제주어에 관심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주어, 몰르는 거 싯건 들어봅서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9년 3월 26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제주어 상담 전용 '들어봅서'(1811-0515) 전화와 전자우편(jejueo0515@hanmail.net) 등을 통해 제주어가 궁금한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진선희기자

"코로나19 위기 제주여성에게 더욱 가혹"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연대체 선언문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제주 지역 3·8 여성대회 연대체(간사 조직 제주여민회)가 '성평등한 국가 돌봄'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시민권의 상징으로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했다. 유엔은 1975년 이날을 기념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고 세계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져 왔다.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지역 3·8 여성대회 연대체는 이번에 '일터에선 '실직', 가정에선 '돌봄 독박' 코로나 위기, 성평등한 국가 돌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표어로 제주 여성대회를 기념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 제주 여성대회는 제주 지역 선언 연대서명, 연대단체 피켓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안내 카드뉴스 배포 세 가지 내용으로 꾸려졌다.

연대체는 '세계여성의날 113주년 기념 제주 지역 여성대회 선언문'에서 "비정규직, 임시직 종사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해고 위협과 소득 감소의 고통은 외면당했다"면서 "교육, 육아와 노인 돌봄을 보조해 주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 명목으로 대거 문을 닫거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그 고통은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와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성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임시근로자이며 상당수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제주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짚었다. 연대체는 "기후 위기와 팬데믹 시대, 모두의 삶을 살릴 여성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한 돌봄서비스 체계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